

격려사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팔공산은 녹음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라 오악(五岳) 가운데 중악(中岳)으로 아버지 산으로 추앙받았던 팔공산은 약사여래가 상주한다는 치유의 산이자 심지대사가 부처님의 팔간자를 봉안했다는 불교의 성지입니다. 또한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조성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을 이곳 부인사에 봉안했던 호국의 산 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재현되는 승시(僧市)는 이곳 팔공산에 수천 명의 스님들이 상주하면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불교용품을 서로 교환하던 장터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이 승시는 이 곳 팔공산과 전라도의 나주 등 두 곳에서 크게 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스님들이 물물교환을 하는 곳이었지만 나중에는 주민과 장사꾼들까지 함께 합세하면서 큰 장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승시를 다시 세우는 것이 단지 옛 것을 재현하는 복고(復古)의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승시라는 대구와 팔공산만이 갖고 있는 불교문화 전통을 새로운 문화상품과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승시 뿐만 아니라 초조대장경을 보관하였던 부인사와 팔공산은 초조대장경 주조 1000년을 맞는 지금 대구시의 문화적 보고(寶庫)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세계인의 축제라고 일컬어지는 2011 세계육상 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이곳 동화사에서 승시가 열리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육상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을 위한 만찬을 동화사에서 주최한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훌륭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되었던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불교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왜곡하여 변질시키고, 이것이 마치 불교계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문화의 힘’이라 했습니다. ‘정신을 배양하는 것도 오직 문화뿐’이라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자국의 문화 자긍심은 문화강국의 으뜸 요인이며 현시대에 선진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의 역사와 전통, 소중한 문화자원을 유지하고 보존할 책무를 등한시 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우리 스스로 부정한다면, 백범 선생이 그리도 갈망하던 문화강국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만년 민족의 역사와 전통은 부끄러운 과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계승해야 할 민족적 자산이자, 세계적 문화자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족적 자산임을 항시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범일 대구 시장님과 원만한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다하신 동화사주지 성문스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이번 승시가 큰 성황을 이루어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2011) 9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